

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慶南中同窓會報

발행·편집인: 鄭昭永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의3
골은 오기스텔 4층 411호
TEL: (051)245-7551~3, FAX: 245-7550
인쇄처: 釜山日報社
在別報總會-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45-20 동북빌딩 504호
T: (02)783-0071~2 F: (02)783-0073

“황금 용마기 올해는 우리 품에”

회장기쟁탈 제30회 기별야구대회 개막...중반전 돌입

입장식...훈훈한 만남

대망의 회장기 쟁탈 제30회 기별 야구대회('98부산시리즈) 입장식이 11일 오전 10시 경남고구장에서 6백여 용마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됐다.
鄭昭永본부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힘들 때일수록 결속과 화합이 필요하다』며 『기별야구대회를 통해 파인 플레이를 다시 배우고 동문·가족의 유대감을 더 한층 고취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입장식에는 鄭본부회장을 비롯해 鄭時榮 본부부회장(14회) 등 임원, 鄭九泳 동기회장(5회), 金洙鉉 경총회 회장(5회) 등 각 동기회 회장 및 총무, 金鳳吉 경남고 교장(8회), 李

民星 경야회 회장(22회)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이날 행사는 선수·임원을 필두로 동문·가족들이 동기회별로 입장하자 국민의례에 이어 교가를 힘차게 제창했고, 전년대회 우승기 반환, 회장대회사, 교장 환영사, 선수대표 선서, 경기규칙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 연합A·B팀의 번외경기가 뜨거운 응원전 속에 펼쳐졌다. 동문·가족들은 본부에서 제공한 도시락 및 음료수와 기념품을 받아 동기회별로 모여 앉아 점심을 나누었고, 야외회를 겸해 오후 한때를 즐겼다.
올해 대회는 경야회가 주관, 경기 전반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10월 11일 오전 10시 모교(경남고)에서 거행된 제30회 기별야구대회 입장식에 6백여명의 동문·가족이 모여 화합과 단합을 과시하고 있다..



기별야구대회 입장식날 스탠드에 앉아 연합팀 경기를 응원하는 동문·가족들(위)과 중년부 합동팀 16, 19회와 14, 21회가 경기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중년 16, 19회 합동팀 결승에 제15, 20회와 패권 다툼

연합팀 번외경기 실수묘기에 폭소·박수

11일 경남고구장에서 열린 회장기 쟁탈 제30회 기별야구대회('98부산시리즈) 2일째 중년 합동팀 경기에서 공수가 뛰어난 제16, 19회와 다크호스 제15, 20회가 각각 결승행에 오르는 행운을 안았다.
*3면 대진표 참조
이날 제16, 19회는 제14, 21회를 맞아 장단 13개를 터뜨려 13-5로

나승했고, 제15, 20회는 제17, 18회를 이겼다(이상 5회전 경기). 중년부는 제14~21회로 구성됐다. 앞서 11시 입장식에 이어 열린 연합 경기에서는 연합B팀(3·5·7·9·11·13회)이 연합A팀(1·4·6·8·10·12회)에 12-7로 이겼다(이상 번외경기 3회전).



기별야구대회 운영계획안을 심의하고 있는 본부 총무단협의회 회의 모습.

장년 22, 24, 29, 30회 8강 진출

각 26, 27, 25, 23회 놀러
청년부 첫 경기
10월 24일 일제히
30개팀 출전 각축

합류했다(이상 7회전·각 13:30-15:10).
11월 1일 경남고구장에서 황금용마기의 새 주인공을 뽑을 올해 기별야구대회는 △연합 2개팀 △중년 연합 4개팀(2회씩씩 합동) △장년 12개팀(단일 출전) △청년부 12개팀(단일 출전)등 모두 30개팀이 출전, 기량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대회는 중년부에서 제19회가 우승을, 제18회가 준우승을 했고, 장년부에서 제24회가 우승을, 제22회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또 청년부는 제42회가 우승을, 제39회가 준우승의 영광을 누렸다.
장년부와 청년부 8강전은 당초 18일로 예정됐으나 태풍 「제브」 복상에 보로 순연돼 25일 오전 10시부터 경

남중과 경남고에서 각각 4게임씩 치른다. 또 17일 예정되었던 청년부 1차전도 태풍 「제브」 때문에 순연, 24일 오후 1시30분부터 경남중과 경남고에서 각각 2게임씩 갖는다.

본부 총무단협의회 개최

기별야구대회 계획안 심의 용마가족 적극 참여 홍보 앞장

제30회 기별야구대회 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한 총무단협의회(慶總會) 회의가 9월 23일 오후 6시30분 부산 동구 범천동 크리스탈비페(24회 옥태인동문 운영)에서 열렸다.
金洙鉉 경총회 회장(5회)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玉潤錫 간사장(16회)

의 사회로 △기별야구대회 예산안 심의 △경야회의 경기 주관 △동문·가족 적극 참여를 위한 대대적 홍보활동 전개 △대진표 추첨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본부에서 최덕호 사무국장(11회) 김병수 총무(22회), 경총회에서 이몽주총무(4회)를

비롯해 각 동기회 총무중 43명, 경야회에서 이민성 회장(22회) 황성동 총무이사(24회) 등 모두 47명이 참석했다. 특히 9월 19일 창립, 동창회의 새 가족이 된 제45회 동기회를 대표해 김 천 총무가 이날 새로 참석해 선배들의 격려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동기회 총무들은 한결같이 올해 대회부터는 동문·가족의 적극 참여를 유도해 식이 가는 기별야구대회를 다시 뜨거운 한 마당잔치로 일으켜 세울 것을 다짐했다.

대회 첫날인 10일 경남중구장에서 열린 장년부(제22~33회 구성)경기에서 제29회는 제25회를 이겼고, 제24회는 제27회를 22-2로 각각 눌러 8강에 선착했다(이상 7회전·각 13:30-15:10).
또 이날 경남고구장에서는 제22회가 제26회를 19-8로, 제30회가 제23회를 25-9로 각각 이겨 8강에

제경 98년 정기총회

18일 올림픽공원서 개최

제경동창회 98년 정기총회가 10월 18일(日) 오전 11시 서울 올림픽공원 제3체육관(역도경기장)에서 열린다.

安又萬희장(10회·전 법무부장관)의 주제로 열리는 이날 총회는 1부 기념식에서 98년 결산보고와 99년 예산안을 승인한 후 올해 기별야구대회 시상식을 한다.

1년만에 다시 만나는 서울지역 동문·가족들은 이날 친구와 선후배끼리 격려의 악수를 나누며 정담을 꽃피우게 된다.

2부 여흥에서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동문·가족이 한마음 되는 시간을 갖는다. 사무국에서는 참석자들의 점심식사용으로 도시락을 준비하며 수많은 기념품과 상품도 마련한다.

제6회동기회

9월 월례회 열어

제6회동기회는 9월 9일 오후 6시 30분 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 「코리아나뷔페」에서 9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朴雄鎭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45명의 동문이 참석, 동기회 발전문제와 본부동창회 행사 적극 참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동문들은 이번 월례회가 여러 사정으로 열리지 못한 가을야유회를 대신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한 채 우정을 나눴다.

孫世一(8회)

국제전략연구대회 참석



孫世一동문(8회·국회의원)은 9월 3~6일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SS) 연차총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했다.

앞서 孫동문은 국회보(國會報) 8월호에 의정시평 「김대중 정부의 탄생과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게재, 한·일간의 이질성을 전제로 한 「협력과 경쟁」의 새로운 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시했다.

南廷判(14회)

자유총연맹 사무총장



南廷判동문(14회)은 9월 28일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성균관대 약대를 나온 南동문은 신아일보 KBS 등에서 기자로 활약하다 80년에 해직됐고 다시 청와대 정부비서관으로 옮겨 관계와 인연을 맺었다. 평동사무차장 인기부장특보 공보처차관 등 역임.

경야회 98년 정기총회

신임회장 李民星(2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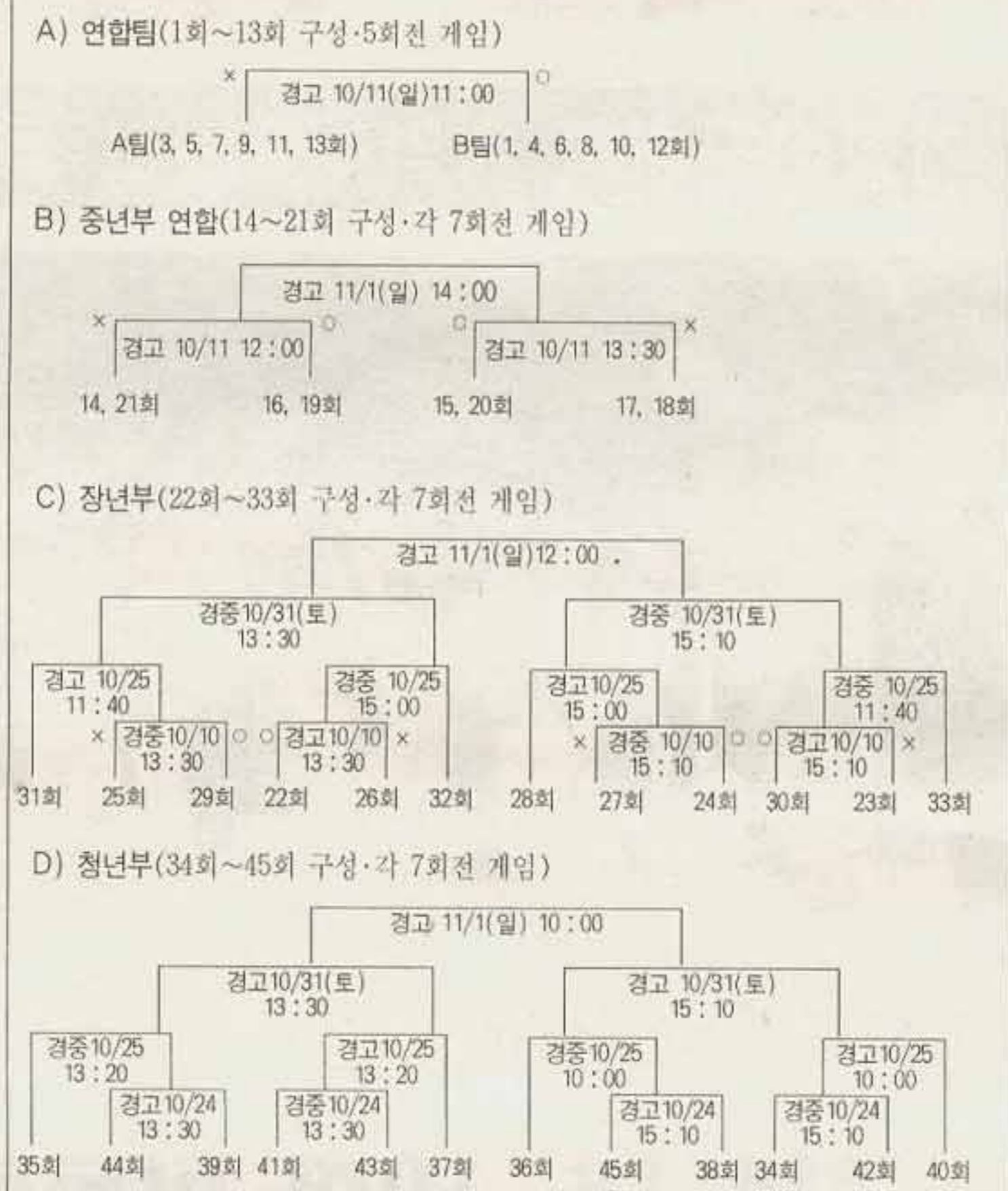
慶野會(재학시절 야구선수 출신 부산 권 동문 모임)는 5월 20일 오후 7시 부산 서구 서대신동 「돌곰창」에서 98년 정기총회를 열고 李民星동문(22회·빅토리해운 대표)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李信和회장(25회)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3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진을 개설했다.

李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기별야구대회와 OB-YB전 등 사업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모교야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회 장=李民星(22회)
- ▲ 부회장=鄭琪泰(23회) 金斗泉(26회) 徐東川(36회)
- ▲ 총무이사=黃盛東(24회)

회장기쟁탈 제30회 기별야구대회 ('98부산시리즈)대진표



朴保國(12회)

수출유공 기업 대표로 청와대 오찬간담회에



朴保國동문(12회·은성사 대표)은 9월 24일 낮 12시 청와대에서 열린 수출유공 「세계 1등 기업」대표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했다.

본부부회장인 朴동문은 이날 정부 및 수출관계자 50여명과 함께 金大中대통령을 예방한 후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진로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에 유학한 朴동문은 75년 가업인 남시용구 전문메이커인 은성사의 대표를 맡아 현재 연간 수출 2천4백8만불의 세계적 전문회사로 발전시켰다.

金光修(13회)

컨공단 이사장 영전



金光修동문(13회·전 등대회 회장)은 10월 17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신임 이사장에 취임했다

(임기 2001년 10월까지).

연세대를 졸업한 金동문은 행정고시(16회)에 합격한 후 공직생활을 시작, 인천지방해항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청와대비서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96년 부산해양수산청장에 임명돼 금의환향 했을 때는 부산권 해운 항만 수산 관련 동문들의 친목단체인 등대회 회장을 맡아 용마정신 구현에 힘썼다.

김건호(14회)

사상구의회 사무국장



김건호동문(14회·동기회 총무)은 최근 부산 사상구의회 사무국장에 임명됐다.

동기회 살림을 맡아 동문 유대강화와 동창회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김동문은 69년 공무원생활을 시작한 이래 시청 건설행정계장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등을 역임했다.

박용길(16회)

PSB보도총국장



박용길동문(16회)은 9월 1일 PSB 보도총국장(이사대우)에 임명됐다. 부산대를 나온 朴동문은 한국문화방송 부산TV국 입사 이래 취재부장 편집부장 보도제작부장 심의실 보도심의부장 심의실 부국장대우 심의위원 편성국 부국장대우 편성부장 보도국장 등을 역임했다.

전영조(23회)

중소기업자문위원 활동



전영조동문(23회)은 10월 1일 부산지역 중소기업 법률·행정자문단에 선임됐다. 세무회계사인 前 동문은 「기업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에 힘을 쏟고 있는 부산시가 주관하는 이 자문단에서 세무회계 부문을 자문하고 있다.

논 판

IMF체제하의 주택가격문제

김 광 진

제17회 경기 6지구 의보조합 급여부장



IMF이후 '98년 전반 기까지 대도시의 아파트 매매가는 약 20%, 전세가는 약30%가 하락하였다. 그런데도 주택의 매매나 임대차 자유로이 이루어지지 않고, 급매물 등을 기다리는 수요자와 가격안정을 바라는 공급자간의 눈치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주택의 매매시점이 어디인가? 하는 것이다. 주택문제에 관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뭔가 매매시점이 보이는 듯하여 이를 요약해 본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요자나 공급자는 IMF의 불확실성시대에서는 자기형편에 알맞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몇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주택건설실태를 알아야 한다.

76년부터 87년까지 연평균 22만4천호를 건설하여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69%

를 달성하였으나 주거환경은 계속 열악한 상태였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에서 주택 2백만호 건설계획(88~92년)을 수립하여 연평균 54만3천호를 건설함으로써 주택보급률을 76%까지 상승시켰다. 신경제 5개년계획(93~97년)을 수립하여 연평균 62만5천호를 건설함으로써 주택보급률을 92%까지 상승시키는 성과는 있었으나 주택 2백만호 건설계획 이후(88~97년), 매년 약 2백60%(76~87년)간 연평균 주택건설대비)수준의 주택을 대량 건설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을 가져오는 데는 기여한 바 있다.

미분양주택 재고 등 많은 문제점이 생겨 주택건설업체의 자금회수가 어려워지기 시작하였으며, 설상가상으로 IMF를 맞이한 지금 고금리·저소득·대량실업 등의 지뢰밭 속에서 주택 소유의욕 감소로 인한 소유환경의 하향 이동 현상(자가→전세→월세)으로 주택의 수요자나 공급자가 한 발 앞을 가지 못하고 고사(구

조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미분양 주택재고를 알아야 한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재고는 97년 6월말 현재 약 8만5천호이었던가 계속 증가하여 98년 6월말 현재는 약 11만2천호로서, 이는 주택업체의 연속적인 도산 등 심각한 경영난을 입증하고 있다.

셋째, 1가구2주택 이상 주택재고를 알아야 한다.

97년말 현재 우리나라 총 가구수는 1천1백54만4천가구로서 이중 53%가 자가 소유하고 47%가 임대가구이다. 이중 약 4백50만호는 자가소유자가 가지는 1가구2주택 이상 주택재고로서 이들은 대출금과 전세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정상판매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주택공급자이며, 이를 바닥 시세에서 매입하려는 주택수요자가 동시에 대기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넷째, 주택금융시장 사정도 동시에 알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은행의 구조조정, 외국자본의 도입, IMF의 금리인하조치 등으로 주택금융시장은 현재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것이다.

다시 향후 주택가격의 변동폭과 변동속도는 현재 수준에서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사회안정과 경제구조조정의 성과, 그리고 정책당국의 대책수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건설실태·미분양 재고 등 면밀히 따져 봐야

불확실성시대에서는 자기 형편 알고 대처를

마산창원지역 5개 직능별 재편

경문회 29명 등 모두 1백18명 활동

마산창원지역동창회(회장 이수창·17회)는 최근 회장단 회의를 열고 회원 4백50여명중 직능별 동문 구성을 새로 완료했다. 이에 따르면 직능회는 경문회·경관회·경은회·경인회·경차회 등 5개 부문으로 재편됐다.

직능별	구성대상	구성일	인원	임원
경문회	교수 교사	98.9.15	29명	회장 최용기(22회·창원대 법대 교수) 총무 정차식(27회·중앙고 교사)
경관회	행정·경찰·검찰·법원·공무직	98.9.16	17명	회장 최현규(24회·창원지검 수사과장) 총무 김항렬(27회·창원지법 사무관)
경은회	은행·우선·증권사·보험사·신용금고	98.9.17	13명	회장 이상환(25회·한국은행 창원지점) 총무 정병수(34회·LG카드 창원지점장)
경인회	의사	45명		회장 김재근(19회·동아신병원장) 총무 이천식(27회·내과원장)
경차회	자동차 관련 업체	97.3	14명	회장 김세권(22회·삼일정공이사) 총무 조시형(34회·쌍용중공업)

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직능별 모임 현황은 다음 별표와 같다.

미국 LA 용마가족 "화합절정"

첫 바둑대회 새벽 3시까지 강행군

천하통일 패권 김경덕동문(21회)

용마기우회 창립... 초대회장 황정숙(14회) 선임

미국 남가주지역동창회에는 골프대회와 함께 바둑대회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LA용마기우회 창립 총회겸 기념 바둑대회가 8월 22일 오후 1시(현지시간) 이곳 LA에서 20여명의 동문·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총회는 초대회장으로 황정숙동문(14회), 부회장에 나천택동문(21회), 총무에 정영치동문(23회)을 각각 선임했다.

황회장이 주재한 이날 대회는 회장기념사에 이어 진행됐다.

승전보를 알려주는 선수들은 저마다 개성있는 실력을 발휘하는 대국으로 일찌감치 탈락한 선수들을 한 수 가르쳐 주는 즐거움까지 곁

들며 흥미진진했다.

풀리그방식을 택하는 바람에 정해진 시간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제한시간제로 변경했으나 대회는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이어져 가는 대장정이었다.

대국 결과 천하통일의 패권은 김경덕동문(21회·3급)이 쟁취, 일본의 조치훈 명인이 기증한 바둑판을 부상으로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김투상은 유복태(15회·3급) 이 의칠동문(17회·3급)이 공동수상했고 3등은 양승태동문(14회·5급)이, 4등은 배대웅동문(14회·7급)이 차지했다.

한편 푸짐한 저녁식사로 즐거움이 한창 무르익었을 때 각 35분씩의 제한시간을 무시하고 장장 2시간 40분이라는 최대의 시간을 소비한 정영치(23회·6급) 김성중동문(26회·8급)이 각각 27

급)간의 대국은 모든 선수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도 남음이 있었으나 「시상권 밖」이라는 결론에 아쉬움이 남았다.

특히 강호준(14회·7급) 김창휘동문(14회·6급)간의 예선전 대역전드라마가 두고두고 화제거리였고, 나천택부회장(1급)의 프로경지에 버금가는 실력이 참석동문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동문들은 앞으로 용마기우회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로 황회장과 나부회장으로 확인,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용마기우회에 정식등록된 회원은 모두 18명인데, 제14회가



이역만리 미국에서 師弟의 情 넘치다

미국 LA지역 명실공인(17회·7급 안목 두번재) 등 동문들은 3월 13일 김재정은사(양종 오본쪽 세번재)의 01로 방문을 계기로 지암배은사(양종 오본쪽 나번재)와 캐너디의 이성훈은사(양종 안목 세번재) 등을 초빙, 시대의 정을 나누고 있다. 김홍주(7회·양종 안목 두번재) 김태준(9회·양종 안목 나번재) 김창휘동문(14회·양종 안목)도 이날 자리를 함께 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6명으로 가장 많다.

이날 집행부는 용마기우회에 정

식 등록된 동문 명단과 조정된 급수를 다음표와 같이 발표했다.

89차 골프대회 성황...희망 예고

영광의 챔피언에 조재관동문(26회)

미국 남가주지역동창회 제89차 골프대회가 용마골프회 주관으로 9월 13일 오후 12시30분(현지시간) 유서깊은 Los Serranos Course에서 28명의 동문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 조재관동문(26회)이 챔피언의 영광을 차지했다.

일요일을 맞아 라운딩을 즐긴 동문들은 한결같이 맑고 환한 모습들이어서 LA동창회의 희망을 예고한 느낌이었다.

차한열회장(22회)이 주재한 이날 대회에서 챔피언에 이어 메달

리스트에 김영중(20회), 1등에 김명민(15회), 2등에 이현재(15회), 3등에 이상길(21회), 장타상에 조병철(38회), 근접상에 김명신(36회), 의상상에 최대영(27회), 부비상에 김태준동문(9회)이 각각 랭크됐다.

1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 용마골프회는 술한 화제와 기록을 남으며 화합과 결속을 쌓아왔다. 용마골프회는 현재 차한열회장(22회)과 조병철총무(38회)가 쌍두마차를 이루며 눈부시게 운영

하고 있어 연임을 희망하는 동문들이 대다수인 실정이다.

특히 그동안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메달리스트를 독점(?)해 왔던 김영중동문은 이날도 메달리스트에 올라 트로피를 받아 다른 상품과 교환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 따라 부비상을 받은 김태준동문이 이를 수락, 결국 12개의 골프공중에 6개만으로 트레이드에 성공해 트로피와 상품을 함께 건지는 행운을 차지했다. 이 바람에 김동문은 허탈속에 빠졌고 『다음부터는 부비상을 목표로 기록을 세우겠다』고 한마디 남겼다.

구분	성명	회	급수	구분	성명	회	급수
회장	황정숙	14	1급	회원	유복태	15	3급
부회장	나천택	21	1급		이의칠	17	3급
총무	정영치	23	6급		김동훈	21	2급
회원	박형석	14	3급		김경덕	21	3급
	강호준	14	7급		정영규	21	5급
	양승태	14	5급		김한성	21	8급
	토머스김	14	6급		배울권	24	4급
	김창휘	14	6급		김성중	26	8급
	배대웅	14	7급		차성주	27	5급



정소영본부회장이(오른쪽)이 제45회동기회 창립총회에서 김동완 동기회장에 회기를 수여한 후 격려하고 있다.

본부 편집·사업분과위 첫 회동 회보 질적향상 위해 매월 회의

본부동창회 편집·사업분과위원회는 9월 11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중앙동 「화촌」에서 朴同烈위원장(8회·본부부회장·해운대성심병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鄭昭永본부회장(6회·정소영치과의원장)을 비롯해 朴 위원장과 金炯碩(16회·부산시보 편

집실장) 金俊吉(18회·한양공업 대표) 金泰均(18회·태일기업 대표) 李 政宰위원(32회·시민여객 상무이사), 본부사무국에서 崔得鎬국장(11회) 金炳秀총무(22회)등이 참석했다.

朴위원장은 鄭본부회장의 인사에 이어 편집·사업분과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 용마가족의 화합과 결속을 위한 홍보에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위원회는 회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위원회의 월1회, 기획·편집회

의 분기별 개최 △회보내용의 다양화 및 참신성 제고 △용마가족의 정보 공유화를 위해 각 동기회 국내외 지역회 직능회의 각종 뉴스를 광범위하게 취재 보도 △가족소식 확대 △용마가족 취업정보망 운영 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홍보사업에 대해서는 △총명부의 효율적 제작과 동기회별 동문 이동상황의 컴퓨터정리화 △회보속쇄판 제작 △모교개교 60년사를 위한 기획 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

제45회동기회 창립총회 개최

초대회장 김동완 "동창회 밑거름" 결의

제45회동기회 창립총회가 9월 19일(土) 오후 7시 부산 중구 신창동 새부산 예식장 2층 연회실에서 40여명의 동창회 새대기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총회는 의안심의를 통해 회칙을 통

과시켰고 초대회장으로 김동완 동문(정성대 경영학과 졸업)을, 총무에 김천 동문(동인대 회계학과 4년)을 각각 선임했다.

앞서 김동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제45회 동문일동은 명예로운 경남중고동창회의 일원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동창회 발전을 위해 뛰어난 업적을 쌓아온 선배님들의 뒤를 따라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김천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 鄭昭永본부회장(6회)은 격려사를 통해 『용기와 패기 넘치는 새로운 용마가 되기를 바란다』며 『항상 창의력을 발휘해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鄭회장은 김동완회장에게 회기와 격려금을 전달했고 최득호 본부사무국장(11회)의 본부동창회 조직 설명 및 모교의 발전상을 소개했다.

또 총무단협의회의 옥윤석·간사장(16회)이 동기회 발전을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동기회 집행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동창회 새대기들은 1부 기념식에 이어 축하회를 갖고 결속과 화합을 결의했다.

바로 잡습니다
회보 제302호에서 △2면 서울지법 서부지원장으로 영진한 朴槿武동문(15회)은 「朴槿武」로 △3면 이영우 대검 중수부2과장은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3부장검사」로 각각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4면 일본지역동창회 광고 명단중 李惠昊동문(38회)은 「李眞昊」로 △6면 제5회동기회 광고 회원명단중 「金榮浩 朴章厚」 동문의 성함이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며, 이중 金和聲은 「金知聲」의 오식어기에 바로잡습니다.

제12회 3-5반창회 김재정은사 초빙

제12회동기회 3학년 5반 졸업생 일동은 9월 29일 오후 7시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일번지일식집」에서 金在正은사를 초빙, 반창회를 열었다. 金準鐵 南基鎔동문이 마련한 이번 행사는 20여명의 동문이 참석, 학창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며 모두의 건강을 빌었다.

제18회 3-3반창회 신진숙은사 영진 축하

제18회동기회 3학년 3반 졸업생들은 9월 9일 오후 7시 남포동 「어가초밥집」에서 당시 담임 신진숙은사를 초빙, 부산시 교육위원회 회장 당선 축하회를 마련했다. 金東會당시 반장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20여명의 동문이 참석, 학창시절 은사의 교육지침을 되새기며 추억을 나누었다.

제자들은 「부산교육위원회 회장」을 기리는 축하패를 朴炳道동문을 통해 증정했다. 이어 金반장은 축배를 선창했고 은사의 무병장수와 「영원한 담임」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줄 것을 간청했다.



제18회 3-3반 반창회 광경. 제자들은 부산시교육위원회 회장인 신진숙은사(오른쪽 두번재)를 초청하고 영진을 축하하고 있다.

일육골퍼들 서울서 랑데뷰

제16회 京釜친선대회 부산팀 참패 불구 賞은 한아름씩

제16회동기회 재경일육골프회(회장 김두환)가 부산의 골퍼들(12명)을 9월 18일 태영 C.C로 초청, 우정의 라운딩을 즐겼다.

이른바 일육골프회 98경부친선 서울초청대회. 이날 오전 11시 8개조 32명이 부산의 하청연, 서울의 김두환 회장의 시구로 라운딩에 돌입했

다.

전적결과 부산팀 참패. 양성민의 메달리스트가 유일한 수확이었다. 서울팀 손석식의 우승을 비롯해 안인환 준우승, 전정축 3위, 변용현 니어리스트, 배정희 롱게스트 등 짝퉁이로 매김했다. 12명의 부산골퍼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기가 죽어 있었

다.

역삼동 서울동기회 사무실 뒤편의 「최가이가 갈비집」에서 시상식 겸 단합회가 열려 소줏잔을 나누면서부터 부산팀이 생기를 얻기 시작했다.

회식은 라운드에 참석하지 못한 서정식 신은조동문(재경총무)등 20여명이 합류한 후 질정을 이뤘, 부산의 옥윤석 경기위원장의 재치 넘치는 사회로 밤늦게까지 화기에애한 분위기였다.

이날 박종영동문(주)태영 부사장이 골프장에약을 비롯해 시상품과 회식비 등 모든 것을 스폰서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한편 서울팀은 각자 받은 상품을 모두 부산팀에게 선물해 한차례 박수에 묻혔다.

일육골프회의 경부친선대회는 올해로 열이홉번째. 매년 5월에는 부산 일육회가 서울팀을 부산의 동래 G.C로 초청하고, 9월(10월)에는 서울에서 부산팀을 초청해 우정을 나눈다.



각전서 치른 서울-부산 일육골퍼들이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민수야빠(남편)가 97년 6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기별야구대회 준결승전에 선수로 불려갔다. 그녀는 그날 제19회와 격돌중 왼쪽다리 골절상을 입었고, 1년 가까이 고생을 했다.

부인석

총무와 공동체 발전

지금은 「추억 속의 삽화」로 여겨지지만, 그때는 참으로 난감했다. 병원 입원실은 한동안 동기생을 비롯한 문병객으로 붐볐다. 몹시 미안해 하는 동기회장 등 친구분들이라 불평 한마디 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동기생들이 부담을 느낄까봐 아픈 몸으로 당당하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갔다. 그때 나는 그녀의 모습을 통해 「용마」의 지력을 발견하게 되었다.



제주도 천지연폭포 앞에서의 다정한 포즈.

그이는 지난 봄(4월)에 동기회가 너무 침체되었다며 자청해 총무를 맡았다. 「주머니속의 손수건」처럼 언제 부턴가 항상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어 즐거울 때면 즐거워서 술 한 잔 나눌 수 있고, 답답할 때면 속사정 털어놓고 하소연 할 수 있는 동기회가 필요하고 귀중한 모양이다. 총무직을 한다고 할 때 말리지 않았던 것을 후회할 수도 없다.

이순재

제29회 권두진동문 부인 중앙도서관 사서사무관

그이는 요즘 25년여의 긴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청소년 시절인 듯 착각하고 있다. IMF한파도 모르고 가정생활도 잇은 듯 동기회 일에 열정을 쏟고 있다.

우리 가족은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 전화벨이 울려 깨어보면 기쁜 소식보다 동기생 부모님께서 별세했

에게 부고를 전해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앞선다.

총무를 맡은 지 6개월. 동기생들로부터 「평생총무」라는 칭찬(?)을 듣는다며 어린이처럼 흐뭇해 할 때는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때때로 행사에 동기생들이 많이 참석해 동기회 전체가 생기가 돌고 활성화되어 간다며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는 그이를 볼 때 건강 걱정이 앞선다.

매일매일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기원해본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불필요한 것을 덜어 내는 일이 곧 행복의 비결이 아닐까 싶다. 그녀의 동창회와 동문들을 위한 봉사정신을 이젠 조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 삶에 있어 향기란 맑고 조촐하게 사는 그 인품에서 저절로 풍겨나오는 기운이라고 생각된다. 향기없는 꽃이 아름다운 꽃일 수 없듯이 향기없는 삶 또한 온화한 삶일 수 있을까?

그이가 동기회 총무직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본인이 좋다고 한다면 이젠 말리지 않으려고 한다. 개인의 봉사과 헌신이 공동체의 발전에 미력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그 이상 귀중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해선 바꾸는 용기를 갖고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선 받아들이는 포용력」 그 양자를 분별해내는 지혜가 끊임없이 솟아나기를 바란다.

다는 부고가 더 많다. 헬레벌떡 검은 양복 입고 나가면서 이곳저곳 친구들

용 마 혼 주

산을 사랑하며

좀 유식한 말로 out doorers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싸돌아 다니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란 뜻인데 젊어서부터 낚시, 골프, 등산 등등 휴일이면 집밖에 나가서 즐겨야 성이치는 사람들을 말한다.

나도 이런 부류에 속하는지 모르겠다. 한때 낚시에 미쳐 남해안 섬이란 섬은 다 돌아다니고 낚시대 비싸다는 것은 다 사고, 낚시가방 깊어지면 2백만원이다. 3백만원이라고 하던 시절도 있었다. 당연히 죽을 고비도 여러번 넘겼다.

몇 살 나이가 더 들어 갑자기 낚시꾼들의 이기심이 싫어졌다. 목표물을 낚은 자의 환희와 황천자의 허무함이 겹쳤다. 낚시꾼들은 자기 고기잡은 포인트를 남에게 알려주지도 않는다. 이런 이기심이 싫어져서 등산으로 돌아섰는지 모르

길을 잃어 밤새 모닥불 피우고 지낸 일, 이 모든 것이 그 대자연속에서만이 진정한 해방감을 얻을 수 있었기에 모두 고통스러운 산행을 계속하는 것이다.

부산 근교에 천성산 공릉능선이란 코스가 있다. 이곳은 부산 근교에서 체력 테스트 코스로도 유명한 곳인데 보통 3시간 이내에 주파하면 한국의 어느 산도 갈 수 있다고 하는 상당히 힘든 코스이다. 소위 네발로 가야 하는 곳도 있고 줄에 매달려 오르는 곳도 여럿 있다.

어느날 경사가 60도가 넘는 절벽길을 오르는데 등산 팀 깃발중에 「경남중고 11회동기회」라 적힌 것을 보았다. 역시 대단한 선배님들이구나, 과연 우리가 13년 후에 이 어려운 코스를 오를 수 있을까? 나는 그 선배님들 「간 큰 영감님」들을 정말 좋아할 것 같았다.



김성권 제24회 선경물류 대표이사

계절마다 다른 자연미에 도취 산행서의 연애장면 선배에 들키기도

산은 참석한 모든 끈들에게 끌고 루 기쁨은 나누어준다. 나는 만큼 줄어드는 기쁨이 아니고, 나는 만큼 늘어난 즐거움을 돌려준다.

신록이 피어나는 연초록의 산길에서 도시의 봄과는 다른 생명이 충만한 봄을 느끼고, 땀별 무더위 속에 짙맛나는 땀을 흘리며 바로 저 능선만 올라서면 얼음물 한 잔 마시자하는 여름등산, 때깔나는 잘 빠진 암봉에 화려한 단풍으로 치장한 가을산은 색시한 미인과 노니는 듯하고, 등산 묘미의 결정체인 눈덮인 겨울산행은 가슴 후련한 자유감, 삶의 압박과 통제를 부단히 떨쳐버리고 고통을 즐거움으로 만들어내는 환희가 있었다.

등산용품점에 들러 이것저것 사기도 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잘 빠진 능선을 보면 저 능선을 밟아 보고싶다고 느끼고, 그러다가 한국의 산이란 산은 다 가볼 요량으로 각 산악회 주말행사에 참석하기도 하고... 이정도 되면 산에 미친 것이다. 지리산 백무동 계곡에서 급류를 헤쳐 나오던 그 위험한 순간,

등등 동반한 여자가 10년 연하고 눈에 잘 띄는 차림새라 그런지 영감들이 눈독을 간뜩 들이는 게 아닌가. 동행한 「모친네」들도 야니꼬운 눈초리로 계속 눈길을 보내는 게 아닌가. 라면 맛이 영 영망이 되고 속으로 「그 영감들 매너 더럽게 없네」하면서 주섬주섬 쟁겨서 일어서면서 모자 들고 지나가려는데 「아, 우리 후배님이시네」 깜짝 놀라 「옛」하니까 「몇 회요?」 「에, 24회입니다」 「역시 우리 후배들은 솜씨가 좋아」 「아, 기만아, 옛날에 니하고 똑 같다」 「후배님 맥주 한 잔 하고 가라」 등등... 맥주를 마셨는지 땀물을 마셨는지, 하필 동문회 행사 모자를 쓰고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 선배님 부부들은 공릉능선을 답과한 11회 영감님들이 아닌가. 그런데 앞의 연하 여인과의 동반 산행은 절대 본인의 케이스가 아니고 김모 동기생의 경험임을 밝힌다.

선배님들처럼 13년 후에도 상쾌하게 산행을 즐기며 살고 싶다. 산을 사랑하며 대자연의 품속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오래 살고 싶다.

제6회 동기회 임원·회원일동

회장 朴雄鎮	총무 崔炳守 文軒淳	具河書 琴 瑛 金慶弼 金奎虎	金瑛坤 金溶澤 金沅培 金仁駿	文亨昉 朴基英 朴釗用 朴獻植	裴禮權 裴文守 徐鳳吉 成富永	李吉相 李相麒 李石雨 李仁雨	鄭德桓 鄭世東 鄭昭永 鄭泰坤	千山茂 崔甲永 崔炳澤 崔祥旭
부회장 鄭建容 鄭相哲 尹柄龍	회원 姜大垣 姜東淑 姜珍馨	金根大 金斗鐵 金道泰 金汶培	金鍾喆 金柱浩 金鏡浩 金泰坤	朴正丘 朴鍾模 朴振奎 朴共大	成二慶 安久遠 安承祐 劉潤官	李允佶 李鍾泰 李鎬範 林警澤	鄭兄錫 曹允承 曹寬承 陳道平	崔祥海 崔成海 崔漢炳 許 澤
감사 李熙文	權奇南 權明世 權善五	金奉圭 金祥燁 金成守	金勗贊 盧在亨 文校淳	卞英秀 裴極千 裴相漢	尹鎬根 尹孝榮 尹榮穆	張明朱 張在洙 鄭敬圭	陳道哲 陳永鎬 千道均	許光洌 洪東淳

재경8회 취미클럽 활동 "노익장 과시"

팔봉회 2박3일 설악산 누비며 우정·낭만 만끽

제8회 재경동기회(회장 이창근·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의 등산 바둑골프 등 취미클럽 활동이 꾸준히 왕성해 다른 동기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문자대로 「노익장 과시」에다 부인들의 호응도마저 날로 높아져 금상첨화.

초가을 手談 무성 친선바둑 우승 손대근

▶팔봉회는 여름 두달을 쉬고 9월 19일 오후 제일기원에서 이유환회장 주재로 친선대국을 가졌다. 강성태 김진석 손대근 신현주 윤태영 이유환 이종수 이창근등문이 참석했다. 수담을 즐긴 결과 우승은 손대근, 준우승은 윤태영 등문이 차지했다.

북한산에서 야구장까지 봉황대기 응원 "신바람"

▶팔봉회는 9월 10~12일 2박 3일

코스로 설악산 산행을 감행해 주위로 부터 부러움을 샀다.

김영철 김영학 김태용 문규항 박성재 서영욱 엄병영 이희순 임영택 전광원 조운제 등 11명의 등문이 대청봉을 정복했다.

일행은 첫날 백담사~수렴동계곡~우곡담계곡~쌍용폭포~봉정암을 거쳐 소청봉에 올라 이곳 산장에서 1박했다.

첫날 아침 일찍 중청~대청봉으로 올라가 동해의 해돋이 장관을 보려 했으나 구름이 끼여 실패했다.

이쉬움을 안고 하산을 재촉, 중청~소청~회운각 대피소~양쪽산장~오련폭포~귀면암~금강굴~비선대~신홍사~설악동으로 내려왔다.

일행은 도중에 금강굴을 왼쪽에 두고 비선대에서 옥수수냉감걸리에 도토리묵과 감자전을 안주로 허기를 채웠다. 그리고 속초에서 온천을 한 후

생선회 결집인 저녁식사에 좀 시끄러운 여흥으로 2박을 보냈다.

마지막날 서울로 발길을 돌린 일행은 생두부정식으로 아침점심을 하고 일성콘도를 나섰다. 우정과 낭만, 희망이 동해의 푸른 바다 만큼이나 출렁거린 2박3일이었다.

한편 팔봉회는 8월 22일 북한산 백운대 코스를 산행한 후 곧바로 동대문구장으로 직행, 모교와 광주상고가 맞붙은 봉황대기 준결승전을 응원했다. 이날 등문들은 모교가 5대 0으로 이겨 결승에 올라가는 기쁨에 도취했다.

한편 산행에 나선 김영철 이희순 전광원 김태용 문규항 조운제 김영학 임영택 박성재등문 등 9명과 구장에서 합류한 조석제 강성태등문 등 모두 11명은 조석제회장 발의로 모교 김봉길 교장을 만찬에 초대, 격려했다. 박성재등문이 스폰서가 됐다.

우정의 그린 샷 활짝

8월 흥기성·9월 김영기 우승

▶잔디회는 9월 17일 안성C.C에서 9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창근회장이 주재한 이날 대회에서 남자부는 우승 김영기(85타 6언더)로 핸디캡 19에서 13으로, 준우승 이유환등문이, 여자부는 우승 신성자씨(이현문등문 부인)·준우승 정윤선씨(추경석등문 부인)이 각각 차지했다.

한편 8월대회(8. 20 같은 장소)에서 남자부 우승 흥기성·준우승 정진수·행운상 윤태영등문이, 여자부 우승 양춘제씨(김영기등문 부인)·행운상 윤문자씨(배주원등문 부인)가 각각 차지했다.

이곳에서 오른쪽 사면을 따라가면 조령샘에 닿을 수 있으며, 여기에서 10분쯤 더 오르면 헬기장을 만나고 숲을 물러선 뒤 10분을 더 오르면 정상이다.

하산은 조령3관문으로 이어진 능선을 따라 가다 왼쪽 윈 풍리 절골로 내려온다(이화령~북부능선~샘터~정상~갈림길~북서계곡~절골).

명승지

조령관문 일대는 조선왕조의 술한 비극과 임란(壬亂)의 치욕이 서려 있다. 조령산 품속에는 가은읍의 회양산 남쪽기슭에 자리잡은 신라시대의

3관문 이르는 능선 농아능 축소판 이화령타고 올라가 절골로 하산을

등을 자랑하는 해국사, 선조들의 기량을 짐작케 한다. 근처에는 수안보 온천이 유명하며 부근에 소옥정과 수옥폭포가 있다.

등문이 펴낸 NEW BOOK

부처님의 참 가르침

청주세관장
李炳淑(16회)편저

李炳淑등문(16회·청주세관장)은 일반 불교신자들이 불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입문서 「부처님의 참 가르침」을 최근 펴냈다. 「부처님은...」은李등문이 세관 공무원으로 몸서 바쁘게도 불구하고 전국의 경불(慶佛)동기생들에게 순보(旬報)로 소식지에 실어 보내주었던 불교상식에 대한 글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 상재한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로부터 시작해 「당신은 어떤 아내로, 또 어떤 남편으로 살아왔습니까?」, 「현대 한국사회에 있어서 효율적인 불교의 포교활동 방



부처님의 참 가르침

향」등 모두 42편으로 엮여져 있다. 특히 이 책은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信), 이를 받아지니며(受), 받들어(奉),

실천하기로(行) 뜻을 모아 창립한 제16회 재경동기회의 불도모임인 일육경불회(회장 허승효)가 창립 1주년을 기념해 발간, 배금주의에 망가진 혼탁스런 사바세계를 깨끗한 이상세계로 만드는 데 활력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일육경불회 총무를 맡고 있는李등문은 부산세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관세청 인사계장 등을 거쳐 지난 6월부터 청주세관장으로 활약하고 있다.(협동문고·비매물)

한국과 세계를 잇는 문화소통

부산대 사범대 교수
조일제(26회)지음

조일제등문(26회·부산대 사범대 교수)은 영어를 전공으로 하는 학습자들에게 문화와 관련된 주제나 국제문화 교류 부문에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오늘날 국제어로서의 영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학습동기를 보다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 북돋워 주는 데 도움이 되는 「한국과 세계를 잇는 문화소통-영어문화소통 능력 향상 방안과 문화정보」를 펴냈다.

이 책은 제1부 문화의 소통과 외국어 교육, 제2부 국제 문화교류와 문화정보 등으로 엮여져 있다.

제1부는 서로 차이가 있는 두 문화의 소통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오해와 오류의 원인들을 진단하고 분석했다. 제2부는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화정

보들과 최근에 세계의 예술·학술계에서 있었던 국제행사 사례와 문화정보들을 정리했다.

조등문은 부산대 사범대 영어과를 나와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와 문학박사학위를 취득(90년)했으며, 영국 노팅검대와 미국 포덤대 및 하와이대 등에서 연구교수로 활약했다.

「D·H 로렌스 문학연구」 등 다수의 저서를 펴냈고 수많은 논문을 발표했다.

이곳 가마들은 다른 지방과 달리 진흙을 팔뚝 만큼 뭉쳐 차곡차곡 쌓은 「망망이가마」로 문화적 가치가 높다.

명아주풀을 인공재배·가공한 지팡이인 청려장은 문경에서만 살 수 있는 특산물중의 하나.

조선초기 명재상이었던 황희정승의 증손인 황정이 이곳에 터를 잡은 뒤 대소행사나 손님 접대용으로 사용키 위해 귀하게 빚어낸 술인 호산춘도 맛 볼 수 있다.

이 산에 가고 싶다

조령산

제 병민

제13회·동진개발 대표

소망을 펼치기 위해 충청도와 경상도를 이어주는 조령산(鳥嶺山·해발 1천17m)에 오른다.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이 산은 남쪽으로 이화령, 북쪽으로 문경새재, 동쪽으로 주흘산을 안고 있다.

특히 조령1관문에서 3관문으로 이어지는 조령천 계곡길이 옛날 영남에서 한양으로 남나들던 문경새재를 품

고 있어 역사의 향기를 느낄 수 있고, 등산로도 잘 정비되어 있어 산행의 묘미를 더해준다. 조령산에서 조령3관문까지의 능선은 용아능의 축소판으로 빼어난 경관이 산꾼들을 감탄시킨다.

산행길

사시사철 개방되어 있는 조령산은 하루 일정으로는 빠듯하지만 다리품을 팔아도 결코 아깝지 않다.

산행은 이화령을 타고 올라갔다 절골로 하산하는 코스를 택하는 것이 좋고, 등산객들이 이 코스를 즐겨 찾는다.

이화령에서 기념비가 세워진 곳으로 길이 나 있다. 오른쪽 비탈을 타고 오르다가 중간 너덜지대를 지나 백두대간과 만난다.

제17회 동기회 임원명단

본부부회장 최만식

김동수
김백수
박가식

김무부 김지창

박청홍
서정승
송수용
이건우
이기일
이범열
정연희
최만식
최성호
하영수
황수길

권경술 김길호

김병문
김성락
김시영
김승현
김영우
김용구
김일원
김정수
김종국
김종대
김주영
김준위
남일용
박영두

박영일 박종구

박홍식
배민부
서용규
서창석
성윤환
손성근
송건사
송승구
송인문
심문섭
신 중
안정의
양성일
여성열

옥영관 우기남

이선형
이성훈
이성흙
이재두
이종길
이종혁
장승구
장정용
전경명
전순경
전영명
정동길
정량부
정해전

천용광 현태일

총무
강주수
(256-5362)
전성광
(012-528-6359)
서울지역
회장
김기도
총무
이재효
(02-547-5701)

“동기회에서 10월 구덕산 산행을 실시 합니다”

- ◆ 일시 10월 25일(日) 오후 2시
- ◆ 출발장소 산정주차장
- ◆ 회식장소 당일 오후 4시 30분 산정잔디밭

본부이사 문석웅

윤성욱
정형근
조중언
허진호

회장 문석웅

당연직이사
강주수
김대성
김상천
김성오
김영진
김준연

부회장 김성오(수석) 강행남

**미국
남가주지역동창회**

조필제(7회)=부이지아나 주립대학 박사. 9월 12일 지방으로 별세

거제지역동창회

朴淳浩(12회)=거제경찰서 수사과장 재직중 9월 29일 정년퇴임
尹龍男(14회)=연초 초등학교 교장 (승진)

기장군지역동창회

崔元球(5회)=(자택)기장군 기장을 죽성리 354-1. 721-2333
朴順福(8회)=(자택)기장군 기장을 청강리 현대APT 106동 204호. 722-2864
安鍾烈(8회)=동백중학교 교감. (자택)기장군 한신APT 101동 604호. 722-7312
丁知鎭(8회)=(자택)기장 대라APT 가동 704호. 757-7000
安鍾仁(11회)=기장중학교 교감. 721-4901. (자택)기장군 일광면 화전리 493-1. 721-4031
朴洪表(13회)=(자택)기장군 기장을 청강리 현대APT 104동 903호. 722-5332
辛政兒(17회)=(자택)기장군 기장교리 성신목화APT 105호. 722-2406. 016-565-2405
姜幸男(17회)=금성강업(주) 대표. 311-8877~9. (자택)723-0097
金鍾國(17회)=기장군 기장을 청강리 110-3 진국 돼지국밥. 724-1116. 018-5566-1116
權容孝(21회)=기장군청 재무과장. 720-8270. 017-565-8270. (자택)동래구 명장1동 일양APT A동 1405호. 527-0065
김창수(21회)=(주)신신기계 상무. 727-5300. (자택)부산진구 초읍1동 대진APT 2동 502호. 816-2611
盧承煥(22회)=유림화학 대표. 241-6634. (자택)기장군 정관면 44-1. 728-5463
姜東植(23회)=고리원지력발전소 제1발전소 발전부 부장. 726-3150. 015-530-3985. (자택)해운대구 좌동 벽산2차APT 212동 404호. 704-2796
盧相佑(24회)=(주)문화통신공업 대표. 852-8851~2. 011-864-8851. (자택)기장군 기장을 석산리 5-5. 721-3349
俞今俊(24회)=기장중앙병원장. 721-8100. 011-869-3880. (자택)서구 서대신동 3가 남성한빛APT 102동 903호. 244-3888
盧駿相(24회)=(주)해원기계 대표. 728-3903. (자택)금정구 남산동 학산코스모빌라 203호. 515-9975
全大憲(24회)=(자택)기장군 기장을 대라리 418-1. 722-2130
朴元珪(25회)=대영약국 대표. 723-1235~6. (자택)북구 만덕3동 그린코아APT 203동 1206호. 336-9800
金鐵五(29회)=녹십자의원장. 727-3355. (자택)해운대구 좌동 벽산APT 106동 1201호. 701-7904
薛光烈(30회)=(자택)기장군 기장을 동부리 대전로알 1406호. 722-0277. 011-553-8987
黃聖範(32회)=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사관. 462-9504. (자택)기장군 기장을 청강리 현대APT 105동 402호. 722-9687
金大經(33회)=한우잔치 대표. 722-

-5649. 011-850-5649. (자택)기장군 기장을 교리 원남빌라 202호. 724-1126
丁玄郁(34회)=푸르덴셜 생명보험(주). 469-3630(교)129. (자택)해운대구 좌동 벽산2차APT 208동 101호. 702-0815
崔大均(34회)=장안읍사무소 호병계. 727-0004. 015-7906-7497. (자택)기장군 기장을 청강리 현대APT 106동 302호. 721-8649
金南洙(35회)=김남수치과의원장. 722-0767. (자택)기장군 기장을 청강리 현대APT 105동 301호. 722-4375
李鍾澤(35회)=국립수산진흥원 전산실. 720-2133. (자택)해운대구 중2동 1485-10 영림1차APT 202호. 743-5528
徐壯雨(35회)=국립수산진흥원 남해수산연구소 기획과. 720-2090. 0662-42-2996. (자택)금정구 구서1동 409-3. 513-8475
韓昌有(38회)=영동횃집 대표. 721-4345. 019-520-5056. (자택)기장군 이천리 198 횃집내
박보현(45회)=기장군청 공익요원. (자택)기장군 기장을 청강리 현대APT 106동 308호. 722-0048. 015-5944-4686

마산창원지역동창회

安永圭(12회)=부산시립의원장. 8월 8일 부산문화회관내 영빈관에서 차녀 재한양 결혼
李誌雄(15회)=초원의 집 대표. 0525-338-1234
孫漢祚(16회)=순한조공인중개사 대표. 87-7858
崔鉉佑(16회)=장의백화점 신현 대표. 017-566-5949
李洙昌(17회)=마산창원지역동창회장. 경창관광여행사 회장. 남광식 유판매(주) 대표이사. 제7기 창원상공회의소 부회장(선임)
金永祐(19회)=7월 24일 모친 별세
朴岩南(19회)=낙지일번가 대표. 83-9980
鄭承洙(19회)=마산창원지역동창회 간사장. (주)태완. 태완건설(주) 대표(부임). 66-8991~2
李仁徹(19회)=내츄럴하우스(의료기기 및 건강식품취급) 대표. 84-5656
辛泰基(20회)=마산창원지역동창회 동기회장. 골프연습장 춘수원 대표. 224-0123
金秉鐸(21회)=삼성크라크(주) 자재 담당이사(부임)
柳寅祚(22회)=6월 22일 모친 별세
姜相大(22회)=교육융합학기자재 동원정밀. 95-1218
朴光奎(23회)=한샘공인중개사 대표. 82-6664
崔賢奎(24회)=창원지방검찰청 수사과장
韓俊錫(25회)=마산창원지역동창회 동기회장. (주)한농상사 대표. 88-5373~4
金正郁(26회)=(주)건축사사무소 가원 대표. 89-1104
황용주(26회)=가자세계주류전문점 대표. 66-1472
金亨泰(27회)=마산창원지역동창회 동기회장. 마산삼성병원 신경정신과장
鄭英周(28회)=마산창원지역동창회 동기회장. 정안과의원장
鄭相國(29회)=신촌특양구이 대표. 46-9887
尹宗壽(29회)=동양기맥원 대표. 222-8171~2. 011-563-8191
金義碩(31회)=현대치과. 44-2263

金鍾式(32회)=마산창원지역동창회 동기회장. 한국철강(주) 영업과장
李宗來(32회)=청풍 대표. 66-9215
金榮喆(35회)=하안치과. 63-3668
金泳勳(36회)=현대치과. 44-2263
李龍漢(37회)=현대치과. 44-2263
周滿錫(38회)=연세치과. 51-2828
金秉洙(40회)=김병수치과. 221-7528
이창호(40회)=대우중공업 연구개발 3팀 대리. 80-6710. (자택)051-256-4530
김진(40회)=한국중공업 수화력 I & C. 78-5236. (자택)마산시 합포구 대성동 2가 4-36. 24-2301
이성완(40회)=삼성항공2공장 자동차부품생산. 60-2132. (자택)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468-2. 051-291-9930
서백중(41회)=삼성항공 제조IBU. 60-2662. (자택)창원시 남양동 22 성원2차APT 204동 1701호. 87-7026
육옥성(41회)=한국중공업 열유체연구팀. 78-3729. (자택)창원시 남양동 동성APT 4동 1203호. 84-4182
유시은(41회)=한국중공업 수화력관리팀. 78-5068
이상민(43회)=한국중공업 원자로 설계실. 78-5715
김황(44회)=삼성항공 2공장 티보 기계 IBU. 60-2561. (자택)창원시 대방동 개나리APT 205동 1403호. 61-7082
김종필(44회)=삼성항공 2공장 구매 품질. 60-2384. (자택)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502-24. 051-291-9406

제7회(서울)

李鍾陸=공주대 장학담당관(교육연구관)
柳相南=홍익대 사범대부속고 교감

제8회

金成浩=9월 6일 장남 결혼
河一淸=사천시장. 9월 30일 교통사고로 별세

제8회(서울)

金吉秀=8월 22일 숙환으로 별세
金秉洙=동맥경색으로 중앙의료원에서 두차례 수술로 완쾌
李昌根=동맥경화증으로 중앙의료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중. 동관 10308호실
孫世一=9월 3일부터 6일까지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연차총회에 한국대표로 참석. 국회보 8월호에 의정시평논고로 김대중정부의 탄생과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육고 실음
金英鎭=둘째 딸 김수정양이 존재의 상실에 대한 참회록이란 장편소설을 창작시대에서 펴냄
朴喜玉=9월 15일 호텔 소피텔 엠베서더 2층 레스토랑에서 차녀 선영양 결혼

제10회

方奉佑=10월 18일 오전 11시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장녀 진희양 결혼

제10회(서울)

高武雄=평택안일여중 교감

제11회

池鉉浩=(주)천일고속관광. (사무실 이전)서구 충무동 1가 8-4. 241-1001. (자택)817-8172
金鮮沂=(자택이사)경남 양산시 신가동 511-3 신기한마음APT 108동 1503호. 0523-386-2216
吳鍾錫=(자택이사)금정구 남산동 130-1 국제빌라 802호. 517-2363
金文燮=(직장이동)부산진구 초읍동 219-19 36/5. 809-8795
朴玉植=삼성화재보험(주) 보옥대리점. 461-8706. 017-560-2594. (자택)연제구 연산9동 망미주공APT 102동 1105호. 756-2594
李在珍=제11회 용남회 회장으로 추대
朴德九=창대문 숯불갈비집(개업). 469-7100
심재룡=9월 19일 아마다에식장에서 장남 결혼

제12회

金富煥=부산시 의회 사무처장(전보)
金容鎬=신곡중학교 교감. 9월 15일 경문회 월례회 주선에 수고하셨습니다
金佑星=럭키화재 인보대리점 대표. 9월 27일 장녀 결혼
文正秀=제3회 부산국제영화제 개최에 조직위원장으로 수고하셨습니다
朴保國=(주)은성사 대표. 9월 24일 청와대에서 수출보검업체로 대통령 표창 받음
徐茂敏=삼성중학교 교감. 7월 20일 학교 강당에서 퇴임식. 35년 동안 2세 교육에 수고하셨습니다
吳世正=연제구청 부구청장. 9월 17일 구청 강당에서 퇴임식
吳壽奉=9월 4일 장림 은성사 옆에서 은성남시마트 개업. 266-4501
鄭棟植=동의대 영문학과 교수. 9월 6일 차녀 결혼
趙柄鐸=(주)88수중개발 부사장
崔珍錫=공주대 사범대 교수. 대전에서 장남 결혼
河一基=브니엘여고 교감(영진)
河一民=국민의당 금정을 위원장. 9월 4일 국회의원. 전문위원을 대동하고 (주)은성사 중소기업 실태조사차 방문

제12회(서울)

鄭廣三=교육부 중등장학관실 교육과정실
尹榮烈=서울시 교육청 정독도서관 관장

제13회

金亮一=9월 15일 올림픽예식장에서 장남 결혼
朴鍾璋=9월 25일 서울 연세동문회관에서 장녀 결혼
鄭榮一=9월 26일 국제회관 4층에서 장남 결혼
姜貴東=제13회 산우회 회장. 204-4443
諸炳熙=제13회 산우회 부회장. 973-7749
文顯吉=제13회 산우회 총무. 246-3577
申敏徹=중부산세무서 직세과장. 257-0811

제13회(서울)

宋永在=잠실중 교장

제14회

陳聖秀=진신경정신과의원(아동 청소년 전문) 원장. (병원이전개업) 부산진구 부전1동 396-11. 817-1845. FAX 804-1865. (자택)508-3760
金相守=북부경찰서 경무과장(보직이동). 304-7071
李載仁=북부경찰서 보안과장(보직이동). 304-3113
趙鍾均=(주)한 종합물류 회장. 중구 중앙동 4가 86-1 동부고속빌딩 1층. 441-5848
李康石=(자택이사)수영구 남천1동 41 소라APT 3동 301호. 623-4474
林宜秀=명가사 대표. (사무실이전) 사상구 학장동 230-1. 632-0303

제15회

裴鳳學=(주)대양포장 전무이사. 053-383-7215. (자택)053-566-4913
李基哲=북부산세무서 부가차세제 2과 1계장(전보). (자택이사)사하구 신평2동 신익강변APT 102동 308호. 206-6328
鄭東圃=052-238-1561. (자택)해운대구 반여1동 현대그린APT 303동 506호. 527-6119
金準君=협성해운(주) 예선부이사. 462-8556. (자택)해운대구 좌동 1319 두산APT 204동 1202호. 701-5770
朴昭男=9월 6일 늘봄관광호텔에서 장남 경득군 결혼
姜富男=동명대학 기계과 교수. 630-3371
朴在浚=이화회 회장. 부곡여중 교사. 514-0826

제15회(서울)

琴昭勝=전진산업(주)(인수) 부사장(영진). 3472-5146~7
金基秀=역삼세무서 부가세과 2계장(전보). 551-9511
朴基義=포항방송국장. (전화번호변경)280-7201
朴英武=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장(영진). 3271-1001
朴哲陽=(주)머큐리 컨설팅(창립) 대표이사 사장(취임). 송파구 풍납동 391-5 대원빌딩 7층. 477-9091. FAX 477-9095
宋再福=독일과의 합작회사 FAG 한화메어링(주)(설립) 한국측 대표이사(선임). 729-3002
李童年=중소기업은행 계열 기은할부금융(주) 상무이사(영진). 538-0132
李義鎬=포항종합제철(주) 후원으로 포스코센터 비즈니스 홀에서 방식기술편람(전6권) 출판기념회 가짐. 3401-8388
洪性禹=요한상사 대표. 8월 29일 육군회관에서 권영길동문 주례로 장남 홍창수군 결혼. 신부는 SBS 드라마 순풍산부인과 작가 전원진양. 776-5439
黃璋道=대한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사장(취임). 776-7362
鄭吉秀=(자택이사)양천구 목5동 목동APT 311동 502호. 651-5659
朴正男=샤론 코리아(주) 전무이사. 구암 22일 부산 자택서 부친 별세. 조문에 오신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730-4437
吳鳳錫=9월 1일 회사 창립 16주년 기념행사 개최(IMF식 간소한 행

경남중고동창회보

사 가집). 719-5900
金秉浩=아진 EMC 회장(취임). (사 무실이전)강남구 역삼동 746-1
회원빌딩 3층. 557-6159. FAX
555-0478
鄭大圭=남북대화사무국 상근위원
(전보). 725-6928
南巖純=자운초등학교 교장

제 16 회

姜軫中=경상대 사범대 행정실장.
0591-758-0036
金鍾海=엘트렐 파이워드 영업부.
853-6380
朴昭雄=마산 방송아카데미 원장.
0551-245-1212
朴鏞吉=PSB 보도총국장. 850-
9400
申榮俊=9월 12일 개최된 마산창원
지역동기회 98년 정기총회에서 동
기회장으로 선출. 0551-246-
6963
梁和胤=롯데쇼핑 부산점장 그만두고
상경. 02-591-6442
鄭成基=장원 TOP MART 약국.
0551-296-8288
鄭泰拾=해운대경찰서 경무과장. 782-
4669. 장인 별세에 문상해 주신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趙武錫=망미 삼성APT 관리사무장.
758-2157

제 16 회(서울)

林熙成=교육부 중등교육 정책과

제 17 회(서울)

안정국=SBS TV 제작본부장 전무
이사
李健雄=쌍용그룹 비서실장 겸 은화
삼 골프장 전무이사. 270-5095
孫富一=원양어업담당관
文正敏=한일은행 부산경남본부장.
051-246-8171
朴建陽=삼성전기(주) 상무이사. 기
관연구소장. 0415-861-1202
朴泰吉=화성섬유 대표. 485-3054
金勝文=엘지상사 상무이사신사업실.
3773-5009
李奉岩=경희의료원 신경외과학 교
수. 958-8401
鄭在根=카톨릭의대 부속 성모자애병
원 산부인과 과장. 032-510-
5673
金光珍=경기제6지구 의료보험조합
급여부장. 0351-829-3411
鄭勝政=한국방송통신대 교무처 수업
과장. 3668-4140
朴潤植=7월 20일 뇌출혈로 별세
盧慶碩=(자택)성남시 분당구 서현
동 우성APT 209동 902호. 0342-
701-7482
孫聞久=서울은행 서초동지점장. 588-
1003

제 18 회

金東會=(주)상지엔지니어링 건축사
대표. 부산시 미술협회 심사위원으
로 위촉. 247-0208
金成權=금사초등학교 교무주임. 522-
2318
金塚準=부산공고 교사. 부산공고 야
구부 부장. 624-1371
愼俊紀=남부산세무서 소득세. (자택
이사)해운대구 LGAPT 103동
1701호
李銀茂=한국손해사정(주) 대표.
464-1832. 10월 10일 올림픽에
식장에서 자녀 결혼
趙陽秀=(주)상지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이사. 247-0208
崔翔鷹=청천화원 대표. 동문에게 특

히 최대로 좋은 물건을 보내드리겠
습니다. 647-6167
韓權國=부산상공회의소 국제부장
洪昌宇=서광건설 대표. 522-7996
黃昌煥=세림방재 대표. 466-8829

동기회수첩 배부 신청 안내
18회동기회에서는 동기회수첩(사
진을 들어감)을 제작하여 각 동기
분들께 배부하고자 하오니 필요한
분은 동기회 사무실(852-6418)
이나 김태균동기회부회장(246-
668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 18 회(서울)

朴鍾九=경찰대학 치안연구소
芮月水=신용보증기금 강남지점장
李元培=8월 8일 모친 별세
崔在範=서울시 건설국장

제 19 회

김용식=(자택)경주시 동천동 985
우방APT 101동 502호. 0561-
746-5568

제 19 회(서울)

黃性珍=서울고검 검사
堅勝義=인천과고 교감
盧恩永=강남교육청 장학사
林圭成=서울 강서교육청 중등계장

제 20 회

金鍾浩=黃明煥동기생과 함께 경북
구미시에 전철우 고향 냉면 대형식
당 개업. 0546-457-9171
禹誌盛=경희산업(주) 전무이사. 10
월 17일 오후 3시 20분 아리랑호
텔에서 장남 상환군 결혼. 412-
7234

제 22 회(서울)

李周成=국세청 감사담당관
吳昌煥=정일입시학원(개업). 0331-
261-6676
石文植=해양물리연구부장

제 25 회(서울)

鄭凡植=경남 의령경찰서장
金南一=안동대 사무국장

제 26 회(서울)

金秀敏=사법연수원 교수
李承茂=교육부 정보화교육국장
朴景載=대구교육청 부교육감

제 27 회(서울)

安重植=C&M 대표이사. 서초구 양
재동 324-4 진성빌딩 5층. 574-
0972
金仁石=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문은경=행자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수
부장
李迎雨=서울북부지청 형사3부장겸
사
金敬鍾=서울지원 부장판사

제 28 회(서울)

金仁鎬=서울지검 특수2부장검사

제 29 회(서울)

金永贊=분당제생병원 비뇨기과장.
생식의학연구소장. 0342-779-
0165
金連洙=(자택)강동구 둔촌동 170-
1 둔촌주공APT 124동 506호.
479-0867
李相旭=LG화재 대기업보험부. 752-
0292(교)8410
李聖俊=(자택)송파구 오금동44 현
대APT 21동 101호. 400-4307
安秉燁=경기도 안양시 관양2동 동일
테크타운 7706호 GTK. 0343-
21-5871
金有成=(자택)은평구 증산동 194-
7 2층. 307-3789
黃善旭=(자택)서초구 방배3동 대우
사원APT 1동 302호. 583-8898
梁承午=(자택)송파구 송파동 가락
삼익APT 215동 501호. 418-
6858
金相奎=(자택)영등포구 여의도동
42 한양APT C동 502호. 785-
6898
신석기=유니트레이드. (자택)강동구
상일동 187 고덕주공APT 721동
502호. 442-0339
鄭然詰=경기도 군포시 수리동 수리
한양APT 823동 1803호. 0343-
95-9052
申英周=KBS위성방송센터. 781-
1042
林太冲=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대우
사원APT 9동 104호. 0343-23-
6711. 011-286-1288
宋守暎=동광계약. 0333-665-
9761. (자택)경기도 평택시 이충
동 593 부영APT 201동 1012호.
0333-668-0196
嚴尙鉉=교육부 교육정책 담당관실

제 31 회

鄭源奎=창대건축사무소. (사무실이
전)동구 초량3동 1153-1 윤원빌
딩 302호. 817-9460

제 37 회

姜承中=금성도서. 315-4411. 017-
585-7785. (자택)금정구 부
곡3동 15-15 2/5. 516-7531
楊湖植=도시가스. 853-0425. 017-
554-5959. (자택)남구 대연3
동 대우그린APT 103동 1101호.
623-4901
梁淳男=세이브맥스. 011-854-
6010. (자택)동구 수정동 1186-
11 17/1 고려금강빌라 301호.
467-8053
盧昌勳=옥정장여관 대표. 동구 초량
3동 1156-12. 464-8858. (자

택)469-4274
金義烈=삼양식품. 553-8765~7.
017-561-5111. (자택)동래구
안락2동 465-1 한우APT 2동
410호. 519-9153
曹鉉周=한일자수 부장. 867-3673.
011-871-0401. (자택)부산진
구 부암2동 55-6 일성인포APT
B동 1203호. 806-3358
表聖洙=돈키호테 대표. 255-7788.
011-556-7788. (자택)사상구
엄궁동 1-10 삼성APT 101동
201호. 323-6007
梁泰馨=벼룩시장. 582-5030. 012-
550-0222. (자택)사상구 주
례2동 LGAPT 203동 1106호
成昌洙=성창수치과의원장. 247-
7123. 018-560-0521. (자택)
사상구 주례3동 595 럭키APT 16
동 706호. 311-0521
崔東吉=제일인쇄해오름 이사. 322-
7054. 017-554-0189. (자
택)사상구 학장동 173-16 구덕
극동APT 101동 1203호. 248-
0179
金正洙=동신목재 부장. 326-4343
~4. 017-552-7161. (자택)
266-3955
蘇守憲=경남중 야구부장. 248-
1531. 011-874-0750. (자택)
사하구 괴정1동 1065-1 괴정자
유3차APT 1606호. 207-0750
金吉永=범천학원. 643-8435. 017-
587-8435. (자택)사하구 괴
정2동 11-2 한일하나로APT 2
동 505호. 291-2118
金孝植=대영화학공업(주). 311-
8531~3. 018-512-0545. (자
택)사하구 대대1동 1548 물운대
APT 119동 1306호. 264-0545
金永坤=김영관내과의원장. 사하구
대대1동 910. 263-0232~3
金亨基=현대자동차 장림영업소. 262-
0311. 012-563-0090. (자
택)사하구 당리동 534-1 벽산으
뜸APT A동 1208호. 205-5411
曹玉鉉=선일기계 대리. 294-2551.
019-594-2551. (자택)사하구
당리동 534-1 벽산으뜸APT A
동 809호
李萬石=현대건설 과장. 971-4727.
(자택)사하구 하단동 가락타운
208동 204호. 206-3358
황태운=성림통상. 254-1341. 017-
561-1341. (자택)743-2243
千雄贊=부일Hits. 서구 압남동 583-
6 송도2사장. 247-7367. 012-
515-5941
俞皓燮=반송해성병원. 545-3366.
(자택)수영구 남천2동 삼익비치
APT 211동 110호. 627-1162

黃昶植=대신학원. 253-6223. 012-
1167-7373. (자택)수영구 남
천2동 148 삼익비치타운 210동
1211호. 625-5920
朴鍾敏=Future Kids. 수영구 남천
동 148 삼익랜드 2층 남천키드클
럽. 628-0365. 011-828-
4003. (자택)해운대구 우1동 대
우마리나APT 206동 202호. 743-
4003
金聖旭=아폴로완구. 246-3072.
011-851-3072. (자택)수영구
망미동 로얄베스트피아 103동
602호. 754-3024
權奇元=한독치과의원. 연제구 연산6
동 1868-4. 861-8497. (자택)
연제구 연산9동 선경APT 102동
1605호. 751-1568
李壽榮=손해보험대리점. 461-
8705. 018-563-8838. (자택)
영도구 동삼1동 반도보라APT
102동 1005호. 405-9893
金玟鎔=천리안부경정보 대표. 257-
1002. 011-564-3072. (자
택)255-7650
權權相=감천1파출소. 208-0112.
018-287-7244. (자택)해운대
구 좌동 1331 상록APT 107동
1802호. 704-5916
金載憲=(자택)해운대구 좌동 1412
동부APT 110동 401호. 702-
2318. 017-553-2318
오종현=미정Hits. 246-9847
姜龍河=(자택)466-4567
高正煥=(자택)645-7771
金光國=(자택)748-2233
金東賢=(자택)253-2432
金英珍=(자택)465-3212
金五敏=(자택)625-0107
金鍾寬=(자택)465-4932
金鍾吉=(자택)312-7781
金振永=(자택)463-2881
金哲民=(자택)253-0939. 011-
582-3077
金致彦=(자택)203-5146
김태형=(자택)291-2706
盧泰建=(자택)0527-354-3031
文晶煥=(자택)867-6039
朴振奎=(자택)865-4321
方正源=(자택)893-5523
배삼수=(자택)526-7711
裴進洙=(자택)742-2121
白昌憲=(자택)245-8521
孫兌憲=유엘테크. 247-9286
宋相穆=빠뮤-유원. 462-4468
宋炯燾=신도상사. 462-1001
申水龍=(자택)0553-43-6861
梁吉秀=(자택)462-7579
吳基旭=(자택)741-5128
尹將勳=(자택)811-7125
李尙伯=(자택)253-2450.

동창회보 광고협찬 안내

대기업체와 달리 중소기업체는 우수한 기술과 상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광고매체들의 높은 광고비용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1년에 10번 발행되고 있는 동창회보는 전국, 해외지역에 있는 동문들에게
배포되기 때문에 높은 광고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동문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크기 및 금액
8cm×24cm(40만원), 8cm×12cm(20만원)
내용:
· 업체소개 · 주요 취급품목 · 대표자명(사진 포함)
· 연락처 · 기타 알리고 싶은 사항
보내실 곳
부산시 중구 부평동 4가 42-3 골든O/T 411호
경남중고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전화(051)245-7551~2
팩스(051)245-7550

가을 모교에 再會의 기쁨 “주렁주렁” 뜨거운 응원으로 「살 맛」 충전

11일 제30회 기별야구대회(98 부산서리즈) 입장식이 열린 모교(경남고)는 동문·가족들이 1년만에 재회하는 「만남의 광장」이 돼 반가움과 격려, 정답에 분했다.

조봉석동문(8회) 입장식 참석 1호기록

○...이날 오전10시에 거행된 입장식에 참석하려고 모교에 제일 먼저 들어선 열성파는 조봉석동문(8회). 그는 대신공원 아침 등산을 마치고 오전 9시 10분경 바로 모교로 들어와 핸드폰으로 동기생들에게 연락, 입장식 다수 참석을 독전하기도.

제11회 미니야구회 경총회 집행부 동분서주

○...제11회동기회는 본부사무국장(崔得鎬)이 동기생인지라 케면을 세워준다며 25명이나 나와 모범을 보이기도. 점심시간에는 대회본부에서 제공한 도시락을 펼쳐놓고 축배를 나누며 미니야구회(?)를 개최.

한편 본부 경총회(총무단협의회) 김수현회장(5회)과 옥윤석간사장(16회)은 입장식에 앞서 각 동기회를 돌며 참석자 규모 파악에 열을 올렸고 동기회별로 도시락을 넉넉히 주려고 무척 애를 쓰기도.

다수부인 입장 개근 대회 활성화대책 주문

○...김창선동문(14회) 부인 김원자씨는 『기별야구대회 입장식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며 『기별야

구대회가 활성화되고 젊은층의 동문·가족이 많이 참여하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비치기도.

“중1 아들 경고 입학 희망 응원전에 재미 붙여 꼭꼭 참석”

○...서울에서 온 지 4년밖에 안된다는 정미숙씨(32회 김창범동문 부인)는 『해마다 나와서 응원을 하다 보니 기분전환도 되고 재미도 난다』며 『중1 아들을 경고에 입학시키는



기별야구대회 입장식날 점심시간 미니야구회를 열고 있는 제11회동기회.

“자녀교육에 큰 도움 동기회 단합 모습에 자긍심”

○...정정옥씨(33회 김동환동문 부인)는 『기별야구대회 입장식과 응원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지 5년째 된다』며 『자녀들의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정씨는 동문들과 가족들의 참석이 늘어나고 대회가 활기를 되찾기를 바란다면서, 동기회 집행부의 적극성과 동문들의 단합된 모습에서 자긍심을 느낀다고.

초등교 1년 조혜연양 “학교경치 너무 좋아요”

○...조혜연양(34회 조남훈 총무 딸·다송초등교 1년)은 『아빠의 멋진 품이 보고 싶어 처음으로 입장식에 참석했다』며 『도시락 밥맛이 좋고 학교 경치가 너무 아름답다』고. 조양은 엄마가 매년 입장식에 나오면 아빠를 응원하러 경기장에 나오면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다고.



마산창원지역동창회가 8월 23일 지리산서 여름철수련회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리산 한바퀴 돌며 “도약”결의 풍성한 덕담에 시름도 잊어

馬昌지역 용마가족 여름철수련회 가져

『경계여건이 어렵고 생활이 힘들수록 마음을 합치고 서로 격려하며 삽시다!』

마산창원지역동창회(회장 이수창·17회)는 IMF홍역을 치르고 여름방학 동안 자녀들 뒷바라지에 노고가 많은 동문·가족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지역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8월 23일 지리산 노고단 일원에서 여름철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기동동문(10회·동양화재보험 지역고문)부부를 비롯해 김영철동문(35회·하안치과의원장)부부에 이르기까지 24명의 용마가족이 참석했다.

일행은 지리산 노고단을 넘어 남원 광한루를 관광했고 오후에는 지리산 온천으로 피로를 씻었다.

남원에서 메기매운탕 맛으로 마음을 살찌운 일행은 여흥으로 우정과 친목을 새롭게 다졌다. 특히 이 준동

문(15회·부산유유동물병원장)부부의 배품잡는 덕담(?)과 김종식동문(32회)이 리드한 동기생과 가족들의 노래자랑 전행은 행사를 절정으로 이끌어 올렸다.

집행부는 앞으로 여름철수련회를 매년 개최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협찬동문은 다음과 같다.

- △김 관(14회·세양월드본부장) = 바나나 3상자
- △이성인(16회·동마산병원장)등 = 1백만원
- △박상식(19회·동방지사장) = 타올 50장
- △최인식(21회·유원산업 회장) = 소주 4상자
- △이경운(24회·대우가전백화점 대표) = 상품 30점
- △홍기철(31회·신창한의원장) = 타올 50장.

전철우 “리복관” 1호점

전통북한음식, 요리 전문점
한우 암소갈비, 냉면류, 순대, 만두국, 전골류 등



구미시 원평동 소재
대형식당(140평) 주차장완비

김종호, 황명환(20회)
TEL : 0546-457-9171
H/P : 011-551-3018

'98 龍馬의 밤 행사 초대

“12월 11일 저녁에 만남시다”

국내외 동문 여러분.
IMF한파를 극복하기 위해
12월 11일 저녁에 임시총회를 겸한
화합 한마당을 펼칩시다.

마음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축배를!

제29회 동기회 임원명단

고문

- 정유성: 산전택시 대표이사
- 이승호: 광복배선1번지 대표
- 정대현: 보훈병원 치과과장
- 황유명: 경상권회의원 보좌관
- 오경호: 원산면옥 대표
- 윤종경: 윤종경내과의원 원장
- 김영화: 한미음식의원 원장
- 이성렬: 세방한의원 원장
- 정길: 건양선박설계 대표
- 이경호: 이경호내과의원 원장
- 김재현: 자해내과 원장

회장

김대욱: 태화미린 대표이사

부회장

- 이석조: 웨스턴레스토랑 대표
- 한계성: 광도LG대리점 대표
- 김대영: 김대영치과의원 원장
- 강정일: 회계사무소 소장
- 김연래: 유상순법률사무소 사무장
- 현용렬: 창신산업 대표

감사

이강훈: 상업은행 중앙동지점

총무

권두진: 태원상사 대표이사

이사

- 강영수: 광역종합건설 대표
- 권오영: 강동병원 정형외과 부원장

- 김광만: 새우리부과의원 원장
- 김기영: LG정유 부산본부
- 김민호: 김민호치과의원 원장
- 김정규: 경린포크레인 대표
- 김영훈: 초하한의원 원장
- 김용재: 럭키화성
- 김창진: 법무사 김창진 사무소장
- 류광원: 부산안과의원 원장
- 문덕환: 인제대 예방의학과
- 박기찬: 진흥상사 상무
- 박병률: 부산의료원 흉부외과
- 박병만: 동방페레그린증권 지점장
- 박상길: 박내과의원 원장
- 박성철: 울산지청 부장판사
- 박영기: 박영기안과의원 원장
- 박영환: 천마 무역부
- 박정철: 도로공사

- 박철환: 박철환소아과 원장
- 배정돈: 성분도병원 산부인과
- 배정업: 배정업한의원 원장
- 배현호: 배현호내과의원 원장
- 서영학: 동부신세부서 법인세과
- 서치홍: 대성보세장치장
- 송경문: 신동아 회계사
- 송철호: 성철기업
- 심원섭: 심원섭정형외과 원장
- 오재용: 한일기전 대표이사
- 오일준: 오일준이비인후과 원장
- 이상용: 이상용내과의원 원장
- 이상진: 우리들병원 원장
- 이재용: 동의의료원 산부인과
- 이용남: 주례여고 교사
- 이정윤: 이정윤성형외과 원장

- 이준환: 고려종합운수 부장
- 이중희: 이중희내과 원장
- 장만: 동원해운
- 장희열: 부산방사선과의원
- 전장화: 한겨레치과 원장
- 정성훈: 정성훈성형외과 원장
- 조진수: 조진수소아과 원장
- 최경보: 일광상사 대표
- 최원익: 최원익내과 원장
- 최정만: 자전상사 대표
- 최종열: 부산상대 경영학과 교수
- 허경도: 허나콤 대표
- 홍해중: 부산의대 내과
- 황병균: 차모병원 산부인과
- 한희철: 한희철치과 원장
- 이충원: 제일은행 법원동지점
- 임광열: 임광열성형외과 원장